

國際間的 技術移轉

技術導入은 充分한 查 및 檢討후에



金 永 吉

<辨 理 士>

目 次

1. 技術移轉과 經濟成長
2. 技術移轉의 意義
3. 技術導入의 利點
4. 技術導入의 方法
5. 技術導入契約과 事前調査

1. 技術移轉과 經濟成長

現代의 經濟成長理論에 있어서는 勞動과 資本과의 變化가 經濟의 長期的 發展을 規定하는 要因으로서 고려되고 있으며 그와 아울러 技術이 第3의 要因으로서 重視되고 있다. 이른바 技術 드라이브 時代의 登場을 如實히 말해주고 있다.

國家의 經濟生産 規模와 擴大는 勞動力的 增大와 資本의 擴大만으로서는 充分히 說明할 수 없게 되었으며 技術革新의 物결은 尖端技術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그 파고는 높기만 하다.

技術革新에 대하여 최초로 注目한 사람은 有名한 쉐펜터 教授라고 하지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 새로운 商品의 製造 ㉡ 새로운 生産方式의 導入 ㉢ 새로운 市場과 販賣의 開拓 ㉣ 새로운 原料와 資源의 獲得 ㉤ 새로운 組織이라고 하는 包括的인 넓은 意味로서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의 長期的 波動은 歷史的으로 파악하여 經濟의 高度成長을 說明하고 있다. 즉 18世紀末부터 19世紀초에 걸쳐서 蒸氣機關이라던가 紡績機械를 中心으로한 第1次 産業革命의 時代 다음으로 19世紀 後半부터의 鐵道普及과 鐵鑛業의 發展時代, 그리고 19世紀末부터 20世紀初의 電力·化學·自動車의 發達時代(當時 第2次 産業革命이라고 했다)의 3時代로 나뉘어서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은 더들어왔다.

現代에 있어서는 技術革新의 Tempo가 과거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빠른 速度와 規模로 번지고 있다. 第2次 大戰후에 나타난 일렉트로닉스·原子力·合成化學·오토메이션·宇宙科學 등의 發展에는 淸목할만한 바가 있으며 이들은 현재도 進行中에 있다. 근대에는 情報産業·海洋開發·人工光線 외에도 파인셀라믹 등의 新素材·遺傳子素子·半導體等 첨단技術이 登場하여 世人을 놀라게 하고 있다. 經濟發展의 歷史에서 본다면 第3次 産業革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發明企業化를 위한 革新→模倣·傳達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로서 經濟發展을 說明한 쉐펜터의 이노베이션의 理論은 그후 많은 經濟學者에 의하여 生産函數가 採擇되어 發展되었다. 國民總生産은 1人當 總生産과 人口(勞動力)과의 積으로 計算됨으로 GNP의 成長率은 1人當 GNP成

長率+人口成長率)이 되는데 1人當 GNP成長率은 技術進步率+(勞動裝備率成長率×資本에 관한 GNP彈力性)이 되어 결국 技術進步의 程度와 勞動生産性의 向上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이 技術을 生産의 規模를 規定하는 第3의 要因으로 본다면 이것을 「生産要素」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技術이 國際間에 있어서 去來된다고 하는 것은 技術貿易이 生産要素의 去來라고 할 수가 있다. 마치 優秀한 商品 또는 資本이 過剩한 나라로부터 相對的으로 不足한 나라로 移動하고 있듯이 優秀한 技術도 先進國에서 開發國으로 移動하는 것은 지극히 當然하다.

工業所有權 특히 特許 또는 노우하우가 無體財產인 것과 마찬가지로 技術은 一般財와는 그 性格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要素와는 다른 性格을 가지고 있다. 그 性格을 技術貿易 즉 技術의 國際的 移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련 特色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것은 技術이 다른 生産要素인 勞動資本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새로운 技術은 새로운 機械와 設備등으로 資本과 分離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고 技術은 勞動者없이 實現될 수 없다고 하는 事實이다. 따라서 技術貿易은 勞動에 變化를 가져오게 한다. 또한 技術貿易은 企業進出등의 資本移動이라던가 技術派遣에 의한 技術의 指導, 經營의 指導등도 뒤따르게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技術의 本質的인 特色은 一般財와는 달라서 누구라도 同時에 使用이 可能하고 얼마든지 되풀이해서 使用할 수가 있다. 이러한 理由로 技術은 自然上의 原理와 마찬가지로 萬人의 共有物로서 이것을 獨占할 것이 못된다고 하는 主張도 있기는 하지만 技術은 無에서 發生하는 것은 아니고 그 發明者, 發見者는 그 努力과 犧牲에 대해서는 당연히 報酬를 받아야만 마땅할 것이다. 發明者 또는 發見者에 그 報償과 어느 程度의 獨占的인 權利를 주는 일이 없고서는 新技術의 發明·發見의 努力을 促進하는 誘因은 없어지고 말것이다. 技術이 一種의 無體財

產權으로서 國際的으로 保護를 받고 그 去來가 成立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技術貿易의 本質的인 一面이라고 하겠으나 자칫하면 國際的으로 物議를 일으키게하여 政治·經濟面에서 커다란 과문을 던지는 例는 흔히 볼 수가 있다.

技術을 리드하는 者는 世界를 리드한다. 日本만해도 世界에서 굴지의 工業國이 된 理由에는 실로 積極的으로 技術導入을 해서 이것을 消化·改良·利用한데 있었음은 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技術革新은 이렇듯 經濟成長의 커다란 原因이 되고있지만 특히 現代와 같이 技術의 規模가 巨大化하고 技術의 進步가 加速化되면 이 傾向은 더욱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率은 擧論하기에도 未及한 點이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韓國産業의 國際競爭의 強化를 위하여 全體的인 技術開發體制를 確立하여 技術開發에 全力을 投球하여 그 基礎를 다짐으로서 技術水準의 向上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良質의 勞動者와 自主的인 國產技術의 發展으로 繁榮을 누려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際間的 技術交流를 더욱 活發하게 하여 그 擴大도 한없이 벌어가는 國際技術을 消化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2. 技術移轉의 意義

技術貿易은 國際間的 技術移轉을 뜻하지만 그 內容은 主로 工業所有權의 讓渡 또는 許諾과 그 밖의 노우하우를 提供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國際間的 技術移轉을 다른말로 表現하면 技術輸出 또는 導入이라고 하겠는데 더욱 알기가 쉬운 것 같다.

技術輸出이라고 하면 工業所有權등의 技術을 外國에 提供하여 그 代價를 받거나 導入으로 그 代價를 支拂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技術導入 片導를 견고하고 있는 우리의 立場을 고려하여 主로 技術導入에 관

해서 그 要點과 問題되는 事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技術導入의 利點과 不利한 事項과 그 方法과 또한 그와 관련해서 發生하는 效果등에 대하여 論하고 技術導入契約時에 考慮할 事項이 많지만 技術面에 한해서 記述키로 한다.

3. 技術導入의 利點

外國으로부터 技術을 導入하여 企業化할 때에는 企業上의 生産性에 있어서 그 危險負擔이 적기때문에 安心하고 企業化를 할 수가 있다. 만약 그 商品이 定評이 있고 信用이 두터울것 같으면 技術導入의 條件은 滿足하다고 볼 수가 있기때문에 그와 같은 技術을 導入하게 되면 生産된 新製品을 輸出하여 海外市場을 開拓·擴大할 수가 있으며 導入技術을 改良·發展시켜 輸出增大도 기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利點은 國民經濟에도 많은 利益을 안겨준다.

즉 輸入防止效果가 있으며 外貨獲得으로 輸出寄與率은 크게 向上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國產技術 向上의 기초가 되고 高度 産業化를 促進케 한다.

4. 技術導入의 方法

앞에서는 技術導入의 利點에 대하여 記述했지만 그러한 利點에 못지않게 不利한 點과 害로운 點도 많다. 그러한 點에 대해서 研究하여 對策을 강구하는 것이 方法論에 있어서 가장 資明하고도 重要하다.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것만큼 國內技術을 企業에서 導入하는 것보다는 大體的으로 過度로 不利한 立場에 있음은 常識의이지만 強要되는 條件등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契約締結時에 머릿돈이라고 해서 一時金 形式으로 代價를 支拂하게 되는 수가 있으며 販賣地域의 制限, 原資材의 強賣등을 例로 들 수가 있다. 특히 로열티 算定方法, 送金果實등에 대해서도 慎重을 기야만 한다.

그 다음으로 크게 問題되는 것이 海外技術에

대한 지나친 依存性이다. 그것은 獨創의인 國家 技術의 開發·利用을 게을리하게 되어 國民의인 外來品崇拜思想의 나쁜 風潮를 자아내게 할뿐만 아니라 技術上의 主體性은 고사하고 永久히 벗어날 수 없는 처참한 現狀이 지속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眞正한 自主意識과 自己獨創의 國民思想 鼓吹가 要請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一部 商業界의 實情과 消費心理를 觀察해볼때 外國 有名블렌드의 盜用, 亂用과 아울러 外來品 第一의 風潮는 隣接國家인 日本에서 볼 수 있는 外來品不賣의 國民思想과는 對照的인 面을 보여줌으로서 識者로 하여금 한탄케 하고 있다. 이러한 劣等感은 國產技術開發의 意志를 阻害하고 貿易赤字, 外債依存의 惡弊를 조장하는 根源이 되고있음을 생각할때 우리는 깊은 反省과 國民의인 一大覺性으로 自力更生의 길을 摸索하여 삶의 血路를 타개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技術革新·技術드라이브 時代에 있어서는 技術의 「라이프·사이클」이 極度로 短縮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新技術과 맞싸워서 對處해나갈 決意와 覺悟가 없이는 激甚한 國際競爭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여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國民全體가 全力을 다하여 學族的인 運動이 展開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단해주고 돈만 벌여주는 허수아비와 같은 沒常識한 國際的인 技術導入契約으로 國家的인 威身을 멀어트리고 實利없는 結果가 되게 해서 안될 것이다. 그리고 外國 有名블렌드는 물론이고 그밖의 商標 輸入등의 亂舞現狀등은 國內技術의 開發에도 阻害要素가 될뿐만이 아니라 國家經濟의 健全한 發展에도 크게 憂慮되는바 있듯이 工業所有權을 위시한 海外技術의 輸入에 있어서도 나라의 體面, 國民의 自尊心과 自主性에 대해서도 一考의 餘地는 있다고 하겠다.

5. 技術導入契約과 事前調査

企業에서 新技術을 開發코저 할때 또는 特許

出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先行調査를 하여 國內外的으로 이미 出願된 他企業과의 技術關係를 確認하고 그 實情을 알 必要가 있듯이 技術導入에 있어서도 輸入하기前에 充分한 調査와 檢討를 하여 不利한 事態發生을 未然에 防止해야만 할 것이다.

그 첫째는 導入豫想技術이 이미 特許登錄 또는 出願公告가 되고있을 경우에는 拒絕理由, 無効原因 또는 第3者의 使用權이 存在하는지의 여부와 이에 抵觸하는 것과 같은 第3者의 特許發明이 있는가의 여부도 調査를 해야만 할 것이다.

노우하우의 경우에는 그 內容이 非公開인 가답에 輸入者는 그 內容을 調査한다는 것은 困難함으로 契約前에 라이선서로부터 노우하우의 說明을 들은後에 그것을 기초로 조사하게 될 것이다. 國內法에서와 마찬가지로 라이선서가 導入技術에 관한 專用實施權을 이미 第3者에 부여

하고 있을 때에는 그 實施權을 다른 第3者에게는 許諾할 수는 없는 것인데 違反해서 實施權을 取得한 者는 專用實施權者로부터 停止處分을 받게 되고 故意·過失의 경우에는 損害賠償의 請求를 받게 될 우려마저 있게 된다. 따라서 事前에 充分히 確認해 둘 必要가 있다. 그리고 重要한 것은 導入技術은 完成技術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開發途上 또는 未完成技術일 경우에는 意外의 損害를 보게도 될 것이다. 즉 商業적으로 完成된 技術임을 要한다. 加工生産에서 未備點이 있다던가 그밖의 缺陷이 發見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問題를 解決하고 企業화한다는 것은 큰 負擔을 안게되어 企業으로서도 窮地에 몰리게 되는 일도 있다. 끝으로 技術導入에 앞서서 製品의 市場調査, 原價計算을 徹底하게 하여 採算과 收支關係를 따지고 販賣豫測을 세움과 同時에 競合技術의 有無와 業界에 관한 情報등을 獲得하여 收益性を 確實하게 해야할 것이다. ❁

(案) 發明振興事業(內)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 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 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産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어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 發明獎勵館의 發明品無料展示 및 企業化 斡旋
- ◎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
-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企業 選定表彰
- ◎ 海外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 企業과 發明家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